

“전북자치도교육청, 소통에 가치 뒀야”

도교육청,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주체 설문조사 결과 ‘소통’ 꼽아 경쟁력 높이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이 1순위로 선택

전북의 교육주체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학생(11.7%)과 학부모(14.5%), 교직원(12.7%) 모두 ‘소통’을 꼽았다. 전라북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연구소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을 주제로 교육 주체의 인식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데이터로 보는 전북교육’으로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13~23일까지 유례가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해 이뤄졌으며, 학생 451명·학부모 1833명·교원 1153명 등 총 3437명이 참여했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가장 중점을 뒀야 할 교육분야로 학생(27.1%)과 학부모(30.9%)는 ‘디지털융합 관련 교육’이라고 응답했다. 교직원들은 ‘생태전환 관련 교육(27.5%)’을 1순위로 꼽았다.

또 디지털융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뒀야 할 교육정책으로 학부모와 교직원은 ‘디지털 윤리 문화, 디지털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응답이 각각 31.2%와 30.9%로 1위를 차지했다. 학생은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지원 시스템 구축(33.1%)’을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직원은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탄소중립, 자원 재활용 등 생태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33.0%와 36.6%로 가장 높았다. 학생은 ‘친환경·농업·의료·교육 등에 집중하는 생명경제 관련 분야 인재양성(27.6%)’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글로벌(국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정책으로는 학부모(38.0%)와 교직원(38.4%)은 ‘외국어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1순위로, 학생(30.2%)은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를 1순위로 선택했다. 전북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생(32.4%)과 학부모(31.6%)는 ‘안정적인 교육자치를 위한 재정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교직원(32.1%)은 ‘지역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의 운영 자율 확대’라고 응답했다.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도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관련 분야에 채용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1순위로, ‘기초학력 보장에 기반한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 내실화’를 2순위로 선택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만의 차별성 있고, 다양한 교육특례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2023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연구성과 발표대회'에 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 모두 6팀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사과정 연구성과 ‘우수’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장관상 등 6팀 수상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손홍찬)은 '2023 전국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연구성과 발표대회'에 출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등 모두 6팀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르면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132개 팀, 6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은 중등사사과정 지구과학분야에서 지구과학반 김태우, 성도현, 오은서, 이준기, 임서진 학생(지도교수 조규성)이 ‘딥러닝을 활용한 암석 분류 탐구’ 연구 주제로 장관상을 받았다.

또 중등사사과정 수학분야에서는 수학반 권재은, 김채린, 이태환, 한민주 학생(지도교수 정은희)이 ‘한글 암호 고안 및 수학적 탐구’라는 연구주제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상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중등사사과정 생물분야에서 생물반 문동연, 조준원, 최소은, 최시연, 한주한 학생(지도교수 구자찬)이 참여한 ‘열성식물 유래의 효염성 박테리아에 의한 배의 내염성 증가’라는 주제의 연구와 중등사사과정 IT융합분야에서 IT융합반 학생 강태성, 김형담, 이준우, 홍채현 학생(지도교수 김아미)이 참여한 ‘딥러닝 점이 학습으로 비속어 감지’라는 연구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도 중등사사과정 물리분야에서 ‘수열합성에 의한 Zn nanorod의 성장과 광학적 특성 분석’ 연구(지도교수 김희대)와 화학분야의 ‘탄산이온의 침전 반응을 이용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영구 제거 연구’(지도교수 박종호)가 각각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원장협의회 총장상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대학 혁신 전진기지

전북대 서울사무소 개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대학 혁신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16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5층에 마련된 전북대학교 서울사무소에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 및 직능단체장들과 지역구 및 동문 국회의원, 국내 주요 기업체 대표, 동창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이를 거점으로 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다.

전북대 서울사무소는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10대 글로벌대학으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역과 중앙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담대한 혁신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 서울사무소에서는 정부 재정지원사업 유치와 수도권권의 우수 신입생 유치, 유관기관과 수도권 연고기업의 유대 강화를 통한 취업 지원, 재경동문회 및 재경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발전기금 모금 확대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서울사무소에 전담인력을 상주시켜 산학협력의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다양한 대학행정 관련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서울사무소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물론 수도권 지역에서의 대학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5층에 마련된 전북대학교 서울사무소에서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 및 직능단체장들과 지역구 및 동문 국회의원, 국내 주요 기업체 대표, 동창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열렸다.

2024년 전북형 건강증진학교 운영

도교육청, 도내 초중고교 47곳 선정... 2월 8일까지 신청접수

전북도교육청은 2024년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초·중·고교 47곳을 선정, 교당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는 △교육과정 연계 보건교육 및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통한 학생 건강생활습관 내실화 △학생 건강지표 실태조사 및 결과 반영을 통한 학생 맞춤형 건강개선 프로그램 운영 △학교 단위 학생건강

문제 진단·개선을 자기주도적 건강실천 역량 함양 등을 위해 운영된다.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로 선정되면 건강지표 실태진단, 주요 건강지표 사업 운영, 보건교육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주요 건강지표 분야인 △비만예방 및 바른 체형 △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일상 생활 건강실천(시력, 구강건강 등) 및 감염병 예방 △기타 학교별 특색 건강증진 사업 중 중점 운영분야를 선택해 건강증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월 8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 중 공문으로 안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성과평가 ‘우수’

사업 기준 3년 연속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2023년 사업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사업 기준 3년 연속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운영 대학을 대상으로 △청년 특화 윈스톱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청년 △진로·취업 지원 서비스 △청년정책 체감도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총 5개 영역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전주대학교는 지역 청년 고용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양

질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지역·대학·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거점형 특화 프로그램인 ‘전북형 J-Digital 인재 양성 프로그램’,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통합 심리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2년 내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또한, 취업 지원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도내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고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취업 매칭, 채용 취업설명회, 박람회 개최 등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도내 우수 기업과 J협의를체를 구성해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있다. /장은성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